

# “전북 소외감 잘 안다”... 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민주 정청래 전 대표 “이 지사와 미래산업 반드시 챙길 것”

“전북도민께 감사드리  
더이상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재선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서울 마포을 국회의원)가 1일 오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해 “최근 정부의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지역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원택 도지사의 취임식 본행사에 앞서 축하 인사말을 통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지사를 선택해 주시고, 14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도의원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도 군산 대이집과 전주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응원해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광주·전남권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감과 우려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정 의원은 “시장에서는 ‘광주·전남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전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원택 도지사와 손을 맞잡고 새만금과 현대차 투자, AI·로봇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전북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여러분께서 이원택 도지사

를 잘 도와달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며 “전북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취임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해서도 “많은 우려곡절을 이겨내고 도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도지사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는 8월 17일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로서 전북 민심을 직접 청취한 사실을 소개하며, 새만금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이 지사의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출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희수 의원(전주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제부 의장은 이병도 의원(전주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제2부 의장은 박정규 의원(임실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돼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이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김희수 당선인이 재적의원 44명의 만장일치인 44표를 얻어 제13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도 이병도 의원과 박정규 의원이 각각 44표를 얻으며 전원 찬성으로 선출됐다.



김희수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의 힘을 믿는다”며 “발안 앞서는 약속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집행부를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 의장을 역임했으며, 문화안전소방위원회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병도 제1부 의장은 “화합의 힘으로 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권위보다 책임에 대립보다 통합을 말보다 실천을 위해 부지런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제12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경

제산업건설위원회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의정 경험을 쌓았다.

박정규 제2부 의장은 “항상 낮은 자세와 경청의 자세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현장의 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제12대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과 윤리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3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13대 도의회는 본격적인 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 ‘내 물에 꼭 맞는 전투복’ 35사단, 훈련병 피팅 시스템

육군 제35보병사단이 훈련병들에게 체형에 맞는 전투복을 지급하기 위해 ‘훈련병 피팅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병 중심의 군수지원 혁신에 나섰다. 35사단 보급수송근무대는 기존처럼 훈련병이 자신의 치수를 추정해 전투복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격의 전투복을 직접 입어본 뒤 가장 잘 맞는 치수를 선택하는 ‘피페식 보급 형태’의 피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투복은 상·하의별로 모두 24개 치수로 세분화 돼 있어 실제 착용 없이 적합한 규격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급 후 교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신병교육대와 군수 관계관의 행정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35사단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입영 2주차에 실시하던 전투복 지급 시기를 3주차로 조정했다.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변화한 체형을 반영해 보다 알맞은 전투복을 지급함으로써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전투복 교환 건수는 평균 108건에서 3건으로 크게 감소해 행정업무가 대폭 줄었다. /이만호 기자

## 이원택 도지사 1호 결재는 ‘간부회의 생중계’

현장·소통 중심 정치 철학 반영  
매월 첫째주 간부회의, 11월부터  
공식 홈페이지 통해 생중계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간부회의 생중계’를 통해 도민주권 시대를 위한 열린 행정에 나선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민선 9기 출범 첫날 간부회의 생중계 추진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이 조치는 도정 핵심 회의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IVE’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는 종합상황실에서 90분가량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회의에는 이원택 지사와 행정·경제부처장, 실국장, 공기업·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방식도 기존의 단순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뀐다.



제87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식이 열린 1일 이원택 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1호결재를 하고 있다.

1부는 주요 현안 요약 브리핑, 2부는 핵심 의제 심층 토의로 진행된다. 어려운 행정 용어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 설명하는 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단순 실적 보고서에서 생산적 논의로 회의 체질이 바뀌고 부서 간 칸막이가 허물어져 정책 왜곡을 막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성

’은 투명한 소통과 행정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달린 회의실 문을 열고 전북의 비전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재정위기 극복, 시민주권 실현”

조지훈 전주시장, 취임 첫 날 시정 운영 방향 설명

조지훈 전주시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시정 철학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기자 여러분을 만나니 오히려 더 긴장된다”며 “시민들이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시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배우자와 함께 충훈탑과 군경묘지를 참배한 뒤 시청으로 출근했다고 밝히며, 첫 결재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내건 시정 슬로건인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 정문에 내건 ‘잘 들었습니다’라는 문구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시정 철학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은 시민에게 설명하는 데 익숙했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정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선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작은 불편과 가려운 곳까지 살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의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허리를 굽히며 달라고 하기보다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재정혁신 TF를 중심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동안 “새로운 지방재정 개혁은 최대한 억제하고 순 세계 금융위기 등을 활용해 기존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필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판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시장에게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능과 정책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인수위원회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는 시민의 뜻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실적을 통해 협치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자신의 행정 철학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념보다 실용이 우선이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여러 차례 “잘 들었습니다”를 표현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시청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시장, 시민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군산시의회 개원식

전반기 의장에 서동수·부의장에 송미숙 의원

제10대 군산시의회가 1일 의장·부의장 선출과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서동수 의원(군산시 가 선거구), 부의장에 송미숙 의원(군산시 마 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0대 군산시의회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다인 6선 서동원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서동수의

의원이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21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찬성 22표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은 의원 초청 중심의 행사 대신 의원과 가족, 김재준 군산시장, 시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한편 제10대 군산시의회는 2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제10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고창군의회는 7월 1일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박성만 의원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에 박성만 의원, 부의장에 조규철 의원, 운영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이경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성만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정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과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고창군의회는 전반기 의정슬로건을 “군민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의회”로 정하고 7월 8일 개원식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나날을 시작했다. /고창=김영식 기자